

2023-05

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['23. 5월]

– 국제원자재가격, 당분간 방향성 모색의 시간이 필요 –

오정석 | 전문위원(3705-6231)

동향

- [원자재지수] 4월 S&P GSCI는 주요 중앙은행들의 추기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6개월 연속 하락. 에너지 부문은 월초 OPEC+ 감산으로 큰 폭 반등 후 약세 마감
 - 부문별로 에너지 -0.9%, 농산물 -5.2%, 산업금속 -3.1%, 귀금속 +1.0%, 축산물 +3.6% 등
 - 3월말까지 누적 상승률, S&P 에너지 -11.2%, 농산물 -7.3%, 산업금속 -2.9%, 귀금속 +9.0%
- [품목별] WTI +1.5%, 美 천연가스 +8.8%, 유럽천연가스 -19.1%, 亞 휘발유 -7.2%, 옥수수 -3.7%, 소맥 -10.5%, 대두 -4.1%, 원당 +21.3%, 구리 -4.4%, 알루미늄 -2.4% 등
 -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, 반면 유럽 천연가스는 평년보다 높은 비축량 등으로 약세 지속. 원당 가격은 타이트한 수급 여건으로 11년래 최고치로 급등

주요 이슈 및 전망

- [원유] OPEC+ 감산, 중국의 수요 호조 등으로 하반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성수기 진입도 앞두고 있어 국제유가는 하방경직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상승 시도를 이어갈 전망
 - 다만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여전해 주요국들의 경기지표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. 서구 은행권 불안과 5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종료 시사 여부에 따라서도 상하 진폭이 확대될 가능성
- [곡물] 국제곡물가격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 당분간 방향성 탐색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, 미국 등 북반구의 주요 곡물 파종 및 생육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
 - 전반적인 세계 곡물수급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, 러시아가 흑해곡물수출협정의 중단을 선언할 경우 일시적으로 글로벌 식량위기 문제가 재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
- [비철금속] 중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의 개선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방향성 탐색 국면이 유지될 전망. 서구 은행권 불안이 완화하지 않을 경우 큰 폭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소지
 - 중국 주택시장 회복 조짐, 친환경 관련 수요 기대감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강세 전망이 우세하나, 단기적으로는 하방압력도 만만치 않다는 시각 병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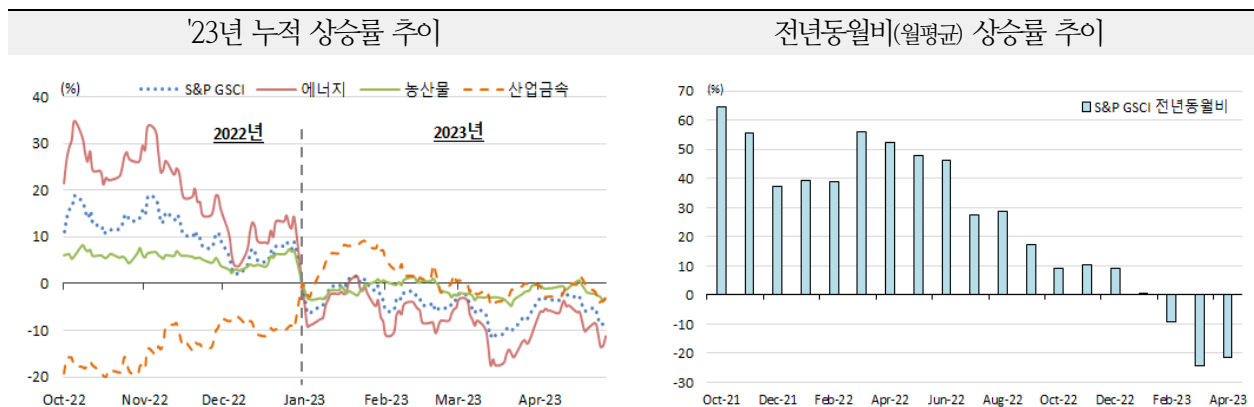
1. 국제원자재 가격지수

□ S&P GSCI 추이

- 4월 S&P GSCI는 주요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6개월 연속 하락. 에너지 부문은 월초 OPEC+ 감산으로 큰 폭 반등 후 약세 마감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자료 : Bloomberg

지수	3월말	4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동월말비(%)
S&P GSCI*	574.02	564.97	-1.6	-7.4	-25.3
에너지	258.26	255.86	-0.9	-11.2	-31.8
농산물	460.16	436.07	-5.2	-7.3	-23.7
산업금속	452.20	438.10	-3.1	-2.9	-19.1
귀금속	2585.98	2611.91	+1.0	+9.0	+5.0
축산물	373.36	386.66	+3.6	+8.3	+14.0

* WTI, 美천연가스, 소맥, 옥수수, 원당, 구리, 니켈,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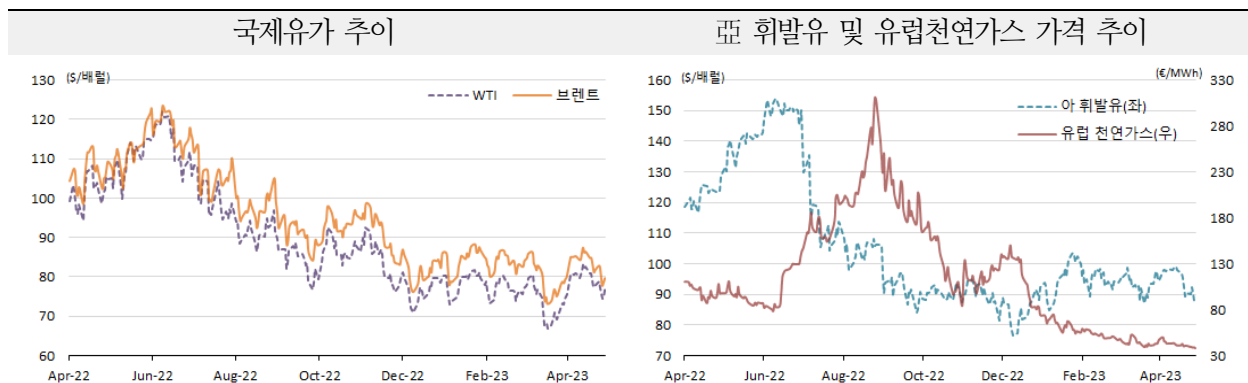
2. 원유

□ [4월 시황] WTI 전월말 대비 +1.5%, 亞 휘발유 -7.2%, 유럽 천연가스 -19.1%

- 국제유가는 OPEC+의 기습 감산에 힘입어 월초 단숨에 \$80을 회복. 다만, Fed·ECB 등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기 우려, 달러 강세 등으로 월 후반 상승폭 크게 축소
- 아시아 휘발유 가격도 수요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.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비축량 등으로 하락, 반면 美 천연가스는 저가 매수세 등으로 소폭 상승

품목	3월말	4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WTI(\$)	75.67	76.78	+1.5	-4.3	-26.7	94.33	76.84
브렌트(\$)	79.77	79.54	-0.3	-7.4	-27.3	99.04	82.43
두바이(\$)	76.84	78.89	+2.7	+0.3	-25.6	97.03	80.52
美휘발유(\$)	113.42	108.28	-4.5	+4.8	-25.8	124.67	107.89
亞휘발유(\$)	94.72	87.87	-7.2	-4.9	-31.7	109.73	94.54
美천연가스(\$)	2.216	2.410	+8.8	-46.1	-66.7	6.542	2.609
유럽천연가스(€)	47.00	38.00	-19.1	-48.6	-61.2	132.34	50.48

주 : NYMEX·ICE 선물가격 기준(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). 단 두바이유, 亞휘발유(Ron 92 기준)는 현물가격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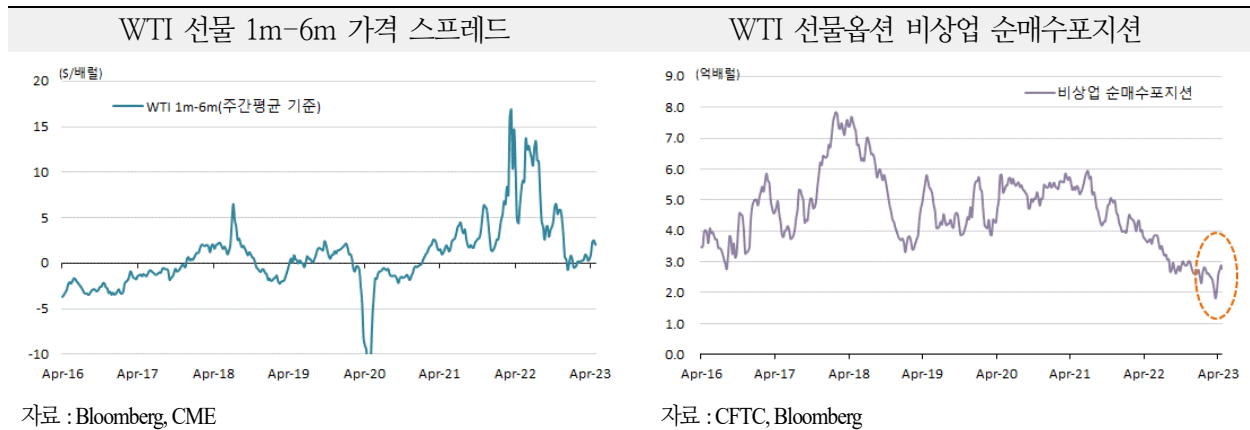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C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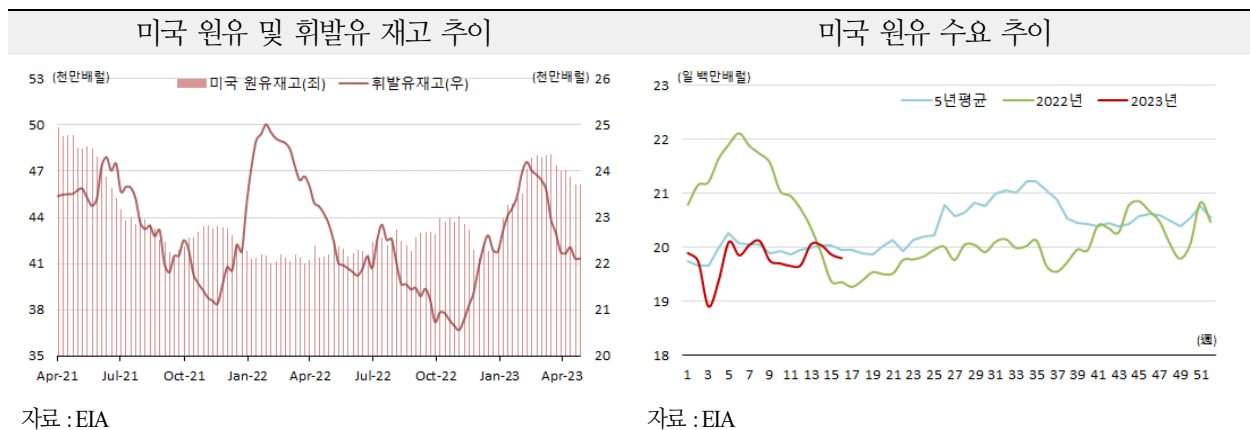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□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

- WTI 선물시장 지표 : 백워데이션 강화, 금융자금 3월 중순 이후 유입 전환
 - OPEC+ 감산 발표 이후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며 전체 월물에 걸쳐 백워데이션으로 복귀. WTI 1월-6월물 스프레드는 3월 마지막 주 \$0.97 → 4월 넷째 주 \$2.09로 상승
 -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пози션은 3.21일 1.83억배럴 → 4.25일 2.78억배럴로 증가(작년 11월 중순 이후 최고치). OPEC+ 감산 이후 숏커버링에 주로 기인 평가



- 미국 실물지표 : 원유 및 제품 재고 감소, 원유생산 현상 유지, 원유수요 회복 조짐 등
 - 원유 재고는 4.21일 4.61억배럴로 한 달 전 대비 -1,278만배럴(-2.7%), 휘발유 재고는 -556만배럴(-2.5%), 증류유 재고는 -517만배럴(-4.4%)
 - 원유 생산은 4.21일 일일 1,220만배럴로 연초 이후 큰 변동 없으며, 수요는 1,980만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+2.2%. 원유 수출은 3월말 역대 최고치보다 줄었으나 고수준 유지



- OPEC 및 중국 지표 : 사우디 OSP(對亞) 연속으로 소폭 상향, 中 원유 수입 큰 폭 증가
 - 중국의 3월 원유수입은 5,231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2.5% 증가하며 역대 2위 기록. 이에 따라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원유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상

	1월	2월	3월	비고
OPEC생산(일 백만배럴)*	28.80	28.88	28.80	• 앙골라(-6.4만), 이라크(-1.8만), 나이지리아(-1.7만)
사우디 생산*	10.30	10.36	10.41	• 감산 기조 유지 속 소폭 증산
사우디 OSP(對亞)**	\$2(3월인도)	\$2.5(4월인도)	\$2.8(5월인도)	• 견조한 亞 수요 반영하여 3개월 연속 상향
중국 원유수입(백만톤)**	43.33	40.74	52.31	• 1~3월 수입 전년동기 대비 +4.5%

주 : OSP(Official Selling Price)는 두바이유/오만유 대비 프리미엄을 의미. 자료 : *OPEC, **Bloomberg

□ [관전포인트] OPEC+ 감산 이후 수급 전망, 美 SPR 보충 시사, 中 연료 수출 한도 축소 등

- OPEC+의 기습 감산 결정 이후 주요 기관들의 하반기 공급부족 전망 강화
 - IEA는 비OPEC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세계 공급은 금년말까지 하루 4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. OPEC은 4분기 공급부족 규모가 하루 20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
 - EIA는 남미와 북미의 증산이 이번 감산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년 WTI와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감산 전보다 \$2씩 상향조정. Goldman Sachs는 OPEC+의 감산이행률이 90%에 육박할 것이라며 내년 4월 \$100 유가 전망을 제시
- 미국 전략비축유(SPR) 재비축 가능성 재시사
 - 에너지부 장관은 조만간 SPR 재비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. SPR은 '17년 3월 6.95억배럴에서 '21년말 6억배럴 내외로 완전히 감소한 후 '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 방출이 단행되면서 금년 4.14일 3.68억배럴로 급감(83년 11월 이후 최저)
 - 다만, 재비축에 대한 정책당국의 입장이 자주 바뀌고 있고, 국제유가도 미국의 재비축 희망가(\$67~72)에서 벗어나 있어 관련 불확실성은 상존
- 중국, 휘발유·디젤 등 석유제품 수출 쿼터 축소 가능성
 - 견조한 자국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영석유회사들의 수출 쿼터는 1차 1,899만톤(+46%) → 2차 800~1,200만톤으로 낮아질 전망(※1차 수출쿼터 상향으로 중국의 1~2월 휘발유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0% 증가하고, 디젤은 10배 이상 급증, Reuters)
 - 중국 석유제품 수출 쿼터가 축소되면, 글로벌 디젤 공급과잉이 완화되고 최근 6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진 아시아 정제마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

□ [전망] OPEC+ 감산, 중국의 수요 호조 등으로 하반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성수기 진입도 앞두고 있어 국제유가는 하방경직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상승 시도를 이어갈 전망

- 다만,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여전해 주요국들의 경기지표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. 서구 은행권 불안과 5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종료 시사 여부에 따라서도 상하 진폭이 커질 가능성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(\$/배럴)〉

	4월(a) ¹⁾	'23.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	'24.1Q(f) ²⁾
WTI	79.50	80(-2)	80.7(+0.4)	85(+0.5)	85.4(-)
브렌트	83.37	85(-)	87.5(+5)	90(-)	90(-2)

주: 1) 4월 평균값 2) 4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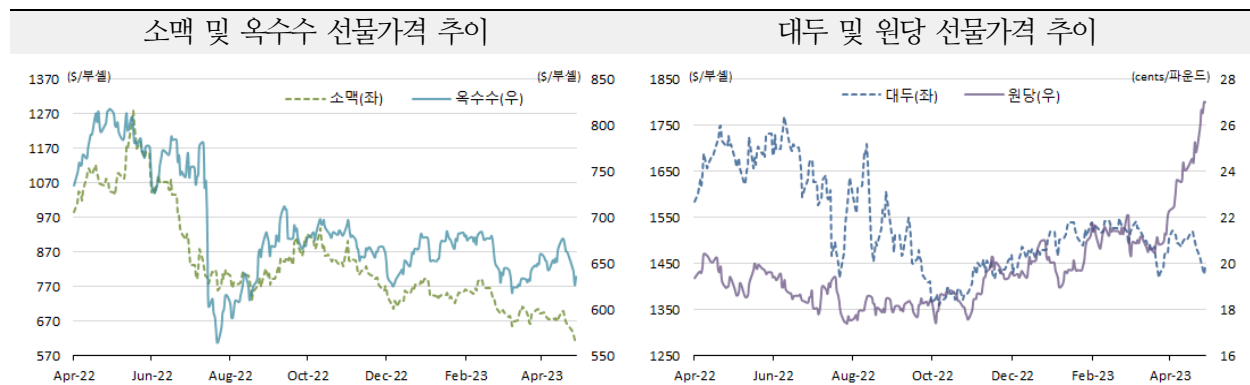
3. 곡물

□ [4월 시황] CBOT 소맥 전월말 대비 -10.5%, 옥수수 -3.7%, 대두 -4.1%, 원당 +21.3%

- 소맥 가격은 흑해 곡물수출협정 불확실성이 부각되었으나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2년래 최저치로 하락. 옥수수도 금년 작황 기대감 등으로 박스권 하단으로 하락
- 대두는 브라질의 기록적 생산 전망 등으로 한 달 만에 반락. 원당 가격은 인도 등 생산국 작황 부진 및 수요 호조로 수급 여건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11년래 최고치로 급등

품목	3월말	4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소맥(cents/부셸)	692.25	619.75	-10.5	-21.7	-40.6	901.67	711.44
옥수수(cents/부셸)	660.50	636.00	-3.7	-6.3	-22.3	693.89	657.38
대두(cents/부셸)	1505.50	1444.25	-4.1	-4.9	-15.5	1,550.66	1503.03
쌀(\$/cwt)	17.42	17.39	-0.2	-3.7	+1.7	16.51	17.36
원당(cents/파운드)	22.25	26.99	+21.3	+34.7	+39.5	18.82	21.68

주 : CBOT-ICE 선물가격 기준. 부셸은 27.2kg, cwt는 45.4kg.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CBOT

자료 : Bloomberg, CBOT, 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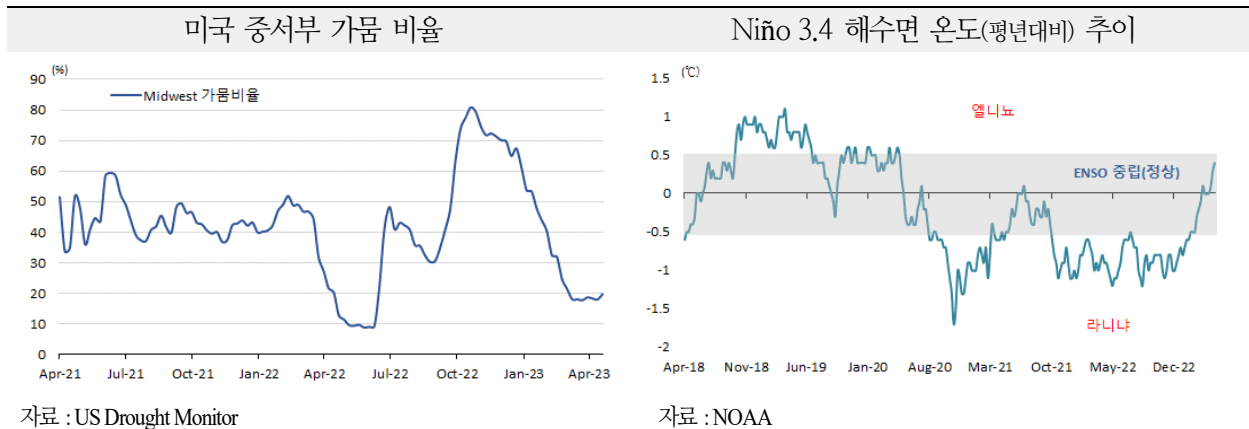
□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

- 미국 파종 및 작황 : 아직 초기인 가운데 옥수수와 대두 파종은 예년 대비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봄밀은 더디게 진행. 파종이 끝난 겨울밀 작황은 '89년 이후 최악의 부진

	파종률			작황(Good/Excellent Ratio)	
	전년동기	4.30	'18~'22 평균	4.30	전년동기
소맥(겨울밀)	-	-	-	28%	27%
소맥(봄밀)	18%	12%	22%	-	-
옥수수	13%	26%	26%	-	-
대두	7%	19%	11%	-	-

자료 : USDA

- 농업기상여건 : 美 옥수수·대두 지역은 양호, 겨울밀 지역은 가뭄 지속. 유럽은 대체로 양호
 - 옥수수와 대두 재배지역인 美 중서부의 가뭄 비율은 4.25일 20%에 불과하고 토양 습윤도도 양호한 상황. 봄밀 주산지인 노스다코타주는 가뭄 비율이 55%이나 3월 중순 이후 개선. 반면 겨울밀 주산지인 캔자스주는 가뭄 비율이 90%에 육박
 - 유럽 날씨는 적절한 강우로 전반적으로 겨울 작물의 생장에 우호적인 여건 형성. 다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극심한 가뭄과 고온이 지속되면서 소맥과 과일 작황 악화가 우려
 - 적도 지역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최근 빠르게 상승하며 4.26일 평년 대비 +0.4℃로 엘니뇨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. 5~7월 엘니뇨 발생 가능성은 62%이며, 기상학자들은 강한 엘니뇨로 내년말까지 세계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(NOAA, BBC)



- 세계 곡물수급 : '22/'23년 세계 생산 및 기말재고 전망 소폭 하향. 대두는 소비 전망은 큰 폭 하향, 재고율은 큰 폭 상향 조정

<세계 곡물수급 전망(억톤)>

	'21/22	'22/23		전년비	전월비		'21/22	'22/23		전년비	전월비
		3월	4월					3월	4월		
곡물						소맥					
생산	27.96	27.38	27.35	-2.2%	-0.1%	생산	7.79	7.89	7.89	1.3%	0.0%
소비	28.05	27.63	27.64	-1.4%	0.0%	소비	7.93	7.93	7.96	0.3%	0.4%
기말재고	7.88	7.63	7.58	-3.8%	-0.6%	기말재고	2.72	2.67	2.65	-2.6%	-0.8%
재고율	28.1%	27.6%	27.4%	-0.7%p	-0.2%p	재고율	34.3%	33.7%	33.3%	-1.0%p	-0.4%p
옥수수						대두					
생산	12.17	11.48	11.45	-6.0%	-0.3%	생산	3.60	3.75	3.70	2.7%	-1.5%
소비	12.03	11.57	11.56	-3.9%	-0.1%	소비	3.63	3.71	3.36	-7.5%	-9.5%
기말재고	3.07	2.96	2.95	-3.8%	-0.4%	기말재고	1.00	1.00	1.00	0.6%	0.3%
재고율	25.5%	25.6%	25.5%	-	-0.1%p	재고율	27.5%	26.9%	29.9%	+2.4%p	+3.0%p

자료: USDA WASDE('23.4월)

□ [관전포인트] 흑해곡물수출협정, 브라질 옥수수 전망, 유럽의 우크라이나 곡물수입 관련 등

- 러시아, 흑해곡물수출협정 중단 위협
 - 러시아는 자국 비료 수출의 재개 및 농산물 수출금역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SWIFT 복귀 등을 요구하며 흑해 곡물수출협정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. 최근 G7이 對러시아 전면 수출금지를 검토하면서 곡물수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
 - 흑해곡물수출협정은 작년 7월 UN 등의 중재로 체결된 이후 2차례 연장되었고, 5.18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. UN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재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
- 브라질, 대두에 이어 옥수수 생산도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
 - 양호한 날씨, 종자 개량(※대부분 GMO 옥수수), 기계화 영농 확대 등에 힘입어 금년 옥수수 생산은 1.25억톤으로 전년보다 +10.4% 예상(Conab)
 -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은 지난 15년간 7배 증가하며 지난해 5천만톤에 육박. 금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(Gro Intelligence)
-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5개국,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한시적 중단
 - 이들 국가는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EU의 무관세 혜택(※내년 6월말 종료)을 받는 값싼 우크라이나산 소맥·옥수수·해바라기씨 등 5개 품목의 수입을 한시적으로 중단. 제 3국 수출을 위한 경유 농산물의 유입도 중단
 - 폴란드와 헝가리는 당초 6월말이었던 수입중단 시한을 금년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며, EU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

□ [전망] 국제곡물가격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 당분간 방향성 탐색국면을 이어갈 전망. 미국 등 북반구의 주요 곡물 파종 및 생육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美 농무부 등 주요 기관들의 '23/'24년 세계 곡물수급 전망에 주목할 필요

- 전반적인 세계 곡물수급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러시아가 흑해곡물수출협정의 중단을 선언할 경우 글로벌 식량위기 문제가 재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곡물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(cents/부셸)〉

	4월(a) ¹⁾	'23.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	'24.1Q(f) ²⁾
소맥	667.46	706(-4)	713(+8)	707(+7)	700(+5)
옥수수	654.31	650(-)	630(+10)	660(+48)	635(+8)
대두	1,488.35	1,450(-)	1,480(+53)	1,480(+93)	1,425(+70)

주: 1)4월 평균값 2)4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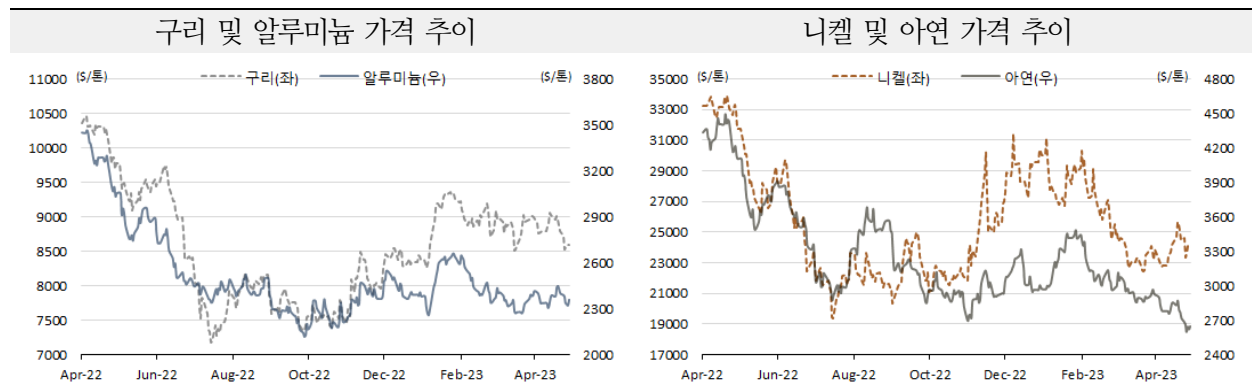
4. 비철금속

□ [4월 시황]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-4.4%, 알루미늄 -2.4%, 니켈 +1.6% 등

-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경기둔화 우려, 달러 강세, 위험 선호심리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비철금속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
-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월 중반 역대 최고치 근접 후 상승폭 축소, 철광석은 중국 철강업체들의 감산 가능성 등으로 연중 최저치로 급락

품목	3월말	4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구리(\$/톤)	8,993	8,596	-4.4	+2.7	-12.0	8,788.4	8927.7
알루미늄(\$/톤)	2,413	2,356	-2.4	-0.9	-22.8	2,710.9	2424.4
니켈(\$/톤)	23,838	24,219	+1.6	-19.4	-23.8	25,617.5	25705.4
아연(\$/톤)	2,922.5	2,647.5	-9.4	-10.9	-35.5	3,439.6	3031.1
납(\$/톤)	2,107	2,148	+1.9	-6.3	-5.0	2,144.6	2130.4
금(\$/온스)	1,969.28	1,990.00	+1.1	+9.1	+4.9	1,802.5	1916.8
철광석(\$/톤)	121.30	106.98	-12.1	-4.2	-19.9	112.9	116.3

주 : 철광석은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% 기준.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LME

자료 : Bloomberg, L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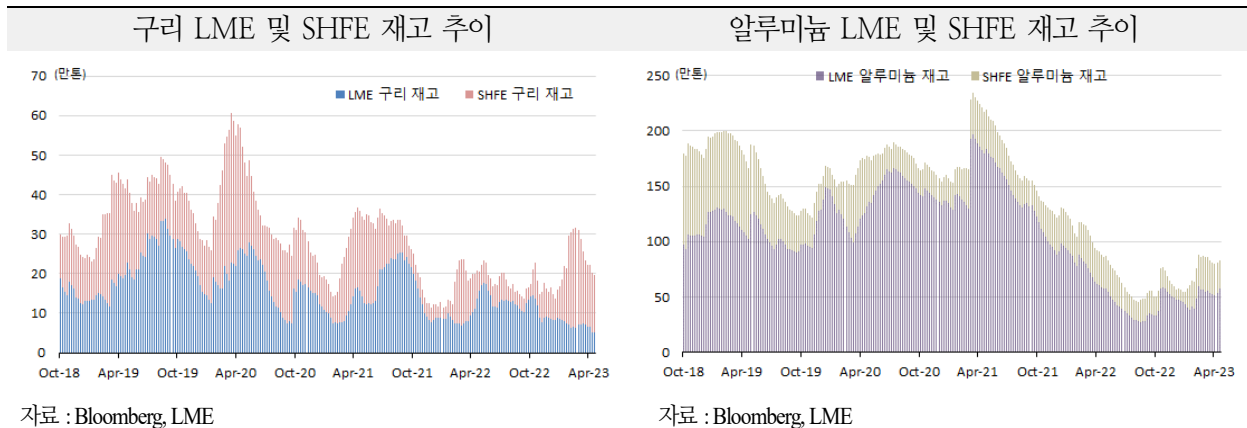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지표 점검

- 중국 경기 : 제조업지수 악화, 산업생산 완만한 회복세, 주택가격 상승 지속 등

	2월	3월	4월	비고
차이신 PMI	51.6	50.0	-	• 국가통계국 PMI는 49.2(전월 51.9)로 큰 폭 하락
산업생산(% yoy)	+24%(1~2월)	+3.9%	-	• 예상치(4.0%) 소폭 하회
기존 주택가격(% mom)	+0.12%	+0.26%	-	• 2개월 연속 상승. 신규주택가격은 +0.44%

자료 : Bloomberg

- 거래소 재고 : 전체적으로 전월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알루미늄은 소폭 증가
 - 4.28일 구리 재고는 LME에서 전월말 대비 -0.3%(-175톤), SHFE에서 -12%(-1.9만톤) 등 감소. 니켈 재고는 SHFE에서 거의 소진된 가운데 LME에서 -10%(-0.44만톤)
 - 아연은 SHFE에서 큰 폭 감소(-38%)하며 총 21% 감소 반면 알루미늄 재고는 LME에서 9%(+4.8만톤) 증가하며 SHFE 감소(-18%, -5.0만톤)를 상쇄.



- LME 비철금속 선물의 금융 순포지션 : 품목별로 차별화 양상
 - 구리 선물의 금융투자자 순포지션은 3월말 2.4만계약에서 4.21일 2.1만계약으로 소폭 감소(-13%). 아연 선물의 순포지션은 0.9만계약 → -346계약으로 유출 전환.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금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
 - 반면 알루미늄의 순포지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월말 0.3만계약 → 4.21일 2.0만 계약으로 증가. 다만, 순포지션 규모는 전년 동기의 17%에 불과해 본격적인 유입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

□ [관전포인트] 중국 수요, LME 현물 프리미엄,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 감산 가능성 등

- 중국 비철금속 수요에 대한 엇갈린 시각
 - 3월 비가공 구리(unwrought copper) 수입은 40.9만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-19%, 비가공 알루미늄 수입도 9.8만톤으로 -18.5%(※1~3월 수입은 -18.8%). 이는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
 - 중국 구리 수요를 보여주는 Yangshang항 프리미엄, 4.28일 \$25.5로 3월 중순 대비 반토막
 - 하지만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지속되면서 소비 및 투자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,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시장도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비철금속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상존

- 구리 현물프리미엄 재차 마이너스 진입. 여타 품목은 마이너스 폭 축소
 - LME 구리 현물-3개월물 가격 스프레드(현물 프리미엄)는 3월말 \$10.5에서 4월 중순 -\$22까지 하락한 후 월말 -\$18.5로 소폭 회복. 알루미늄 스프레드는 3월말 -\$36에서 4월말 +\$12로, 니켈은 -\$187에서 -\$8.5로 개선
- 중국 철강 감산 가능성, 알루미늄 생산은 증가세 둔화 소지
 - 탄소배출 축소를 위해 생산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철강협회가 수요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사에 감산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 감산이 단행될 가능성
 - 3월 알루미늄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% 증가했으나 2월에 비해 증가세가 약화되었고, 중국 생산의 12%를 차지하는 윈난성에서 강우량 부족에 따른 수력발전 감소로 알루미늄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 전체 생산 증가세가 둔화될 소지
- [전망] 비철금속 가격은 중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의 개선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방향성 탐색 국면이 유지될 전망. 서구 은행권 불안이 완화하지 않을 경우 큰 폭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
- 중국 주택시장 회복 조짐, 역사적으로 낮은 거래소 재고, 친환경 에너지 관련 수요 기대감 등으로 중장기 관점에서는 강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.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긴축과 금융불안, 경기 불확실성 등 하방압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(\$/톤)〉

	4월(a) ¹⁾	'23.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	'24.1Q(f) ²⁾
구리	8,817.4	8,815(+65)	8,840(+20)	8,867(-196)	9,000(-200)
알루미늄	2,367.3	2,469(-10)	2,500(-6)	2,538(-25)	2,583(-43)
니켈	24,010.7	24,000(-868)	23,025(-750)	22,860(-140)	22,855(-1,295)
아연	2,761.1	3,000(-42)	3,000(-)	2,963(-137)	3,100(-100)

주: 1) 4월 평균값 2) 4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31 혹은 jsch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